EINSHANA

EINSHANA

아인스하나

ISSUE 1 Season 2019/20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나고 자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딘 구자철.
그는 만 스물하나의 어린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향했다.
9년이란 시간 동안 독일에서 최정상급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즌 평균 25경기에 나섰던 구자철은 매 순간이 치열한 경쟁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왔다.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국에서 구자철이 걸어온 성장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전성기를 지나 커리어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구자철. 한때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현재의 어린 선수들에게 기량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아인스하나 EINSHANA

2019년 1월, 한국의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 발전을 위해 구자철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룹의 이름은 구자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아인스하나(EINSHANA). 아인스(EINS)와 하나(HANA)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각각 숫자 1을 뜻하며 독일 및 유럽에서 경험하고 배운 선진적인 시스템을 한국의 문화에 맞춰 개량하고 향상시켜 더 나은 한국형 선진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019년은 아인스하나가 공식적으로 창립되고 유소년 육성을 위해 내적, 그리고 외적인 환경의 개선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연구하고 경험을 쌓는 한 해였다. 세계 3대 빅클럽이라 불리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대한축구협회와의 MOU 중개,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구자철 선수가 제주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던 토크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 독일 내 최첨단 트레이닝 센터로 잘 알려진 TSG 호펜하임과 FC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아카데미 견학 그리고 독일 U20 국가대표팀 마누엘 바움 감독의 KFA 해외 강사 초빙 교육 등 이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시금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축구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유럽 빅클럽들의 국제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의 저력을 시작으로 이후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이뤄지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해외 유수의 클럽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이 양질의 교육과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다면 한국 축구의 국제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전반적인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더불어 K리그의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아인스하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선수들이 축구에 언제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컨디셔닝, 테크닉, 인지능력, 전술, 영양, 멘탈, 인성교육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연구하고 선수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선수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사고하기 위한 배움에 큰 가치를 두고 박지성, 구자철, 손흥민을 뛰어넘는 더 많은 다음 세대 선수들의 등장을 위해 아인스하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룹이 될 것이다.

구자철
KOO, JaCheol

미드필드 Midfield

Professional History

2020	
2019	알가라파 SC
2018	
2015	FC 아우크스부르크
2014	
2013	1.FSV 마인츠 05 VfL 볼프스부르크
2012	
2011	FC 아우크스부르크
2010	VfL 볼프스부르크
2009	
2008	
2007	제주 유나이티드

Korea National Team

2020	
2019	AFC UAE 아시안컵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2013	
2012	런던 올림픽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2009	FIFA 이집트 U20 월드컵
2008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예선
2007	

76경기 출전 19득점 6도움

211경기 출전 28득점 17도움
아시아 선수 최다출전 5위

95경기 9득점 20도움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2012 런던 올림픽
2009 FIFA 이집트 U-20 월드컵
3개 메이저 대회 대표팀 주장(역대 최연소)

15/16 FC 아우크스부르크 팀 최다득점
15/16 키커지 선정 분데스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TOP5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득점왕/도움왕/베스트일레븐
2010 K리그 대상/도움왕/베스트일레븐/팬타스틱 플레이어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PARTNERSHIP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와 아인스하나는 2019 해외 강사 초빙 교육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독일 및 유럽에서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인스하나는 독일 U20 국가대표팀 감독 마누엘 바움을 초빙하여 교육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아인스하나는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축구발전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제주대 LINC+ 사업단

제주대학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과 아인스하나는 제주지역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및 홍보, 지역공헌사업 공동운영 등에 협력키로 했다.

FC 바이에른 뮌헨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인스하나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대회인 FC 바이에른 유스컵 2020년 한국 대표팀 선발권 및 매니지먼트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아인스하나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대한축구협회의 업무협약 중개를 맡으며, FC 바이에른 뮌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번 협약이 한국 유소년 선수들과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FC 바이에른 뮌헨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DIT 동의과학대

부산 동의과학대와 아인스하나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기업 DIT 스포츠 재활센터로 엘리트 선수들의 '재활의 성지'로 알려진 동의과학대는 스포츠 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아인스하나와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과 스포츠 재활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아디다스

2019년 1월, 오랜 시간 동안 구자철과의 스폰서쉽 파트너인 아디다스가 아인스하나와 스폰서쉽을 체결했다. 아디다스는 구자철의 풋볼 토크콘서트 & 마스터클래스 후원에 이어 한국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구자철과 아인스하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할 계획이다. 아디다스는 2017년부터 매년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디다스 마이드림FC'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구자철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야구소프트볼협회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아인스하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야구 산업 및 인력 육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현장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시설, 인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비프로일레븐

비프로일레븐과 아인스하나가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축구 영상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인 비프로일레븐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K리그 등 세계의 수많은 팀들에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프로 일레븐은 한국형 선진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아인스하나에 최단 기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전에 함께할 것을 밝혔다.

JIBS

JIBS와 아인스하나가 제주도 체육 부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JIBS 제주국제자유도시 방송은 아인스하나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발을 위한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제주도 내에서 열리는 아인스하나의 유소년 스포츠 이벤트 및 교육 행사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제주도 기업 아인스하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ISSUES

7 Apertura Sports GmbH
아인스하나의 공동 설립자 아퍼투라 스포츠

9 KFA x FC Bayern Munich
대한축구협회와 FC 바이에른 뮌헨, 파트너쉽 체결

11 Youth Development Project
구자철의 풋볼 토크콘서트 & 마스터 클래스 in 제주

13 Youtube Marketing
슛, 별은 나의 친구 '슛별친'

15 Bundesliga Scout
분데스리가 스카우트의 시선으로
한국 유소년 선수들을 보다

17 TSG 1899 Hoffenheim
TSG 1899 호펜하임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하다

23 KFA x DFB
2019 KFA 해외 지도자 초빙 교육,
독일 U20 국가대표 마누엘 바움 감독을 만나다

25 Ulsan Hyundai Football Club
울산 현대에 새로운 활기를! 독일 코치를 파견하다

27 FC Bayern Youth Cup 2020
Road to Munich!
FC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 한국 대표팀 선발권 획득

29 CSR Project
아인스하나, 축구로 희망을 선물하다

EINSHANA
Sports Business Experts

Season 2019/20

홈페이지 einshana.com
인스타그램 @einshana
유튜브

발행처 EINSHANA
발행인 장민석
글 유성훈
디자인 성주원
편집 이지훈 김인의
사진 아인스하나(주)
한국프로축구연맹
TSG 1899 Hoffenheim
FC Bayern München
인쇄 (주)월링투

아인스하나의 공동 설립자 Apertura Sports GmbH

아인스하나의 비즈니스 원동력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스포츠 산업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Apertura Sports(이하 아퍼투라 스포츠)는 아인스하나의 공동 설립자로서 아인스하나의 독일 및 유럽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다.

아퍼투라 스포츠는

아퍼투라 스포츠는 변호사 마틴 라트와 기업가 요하네스 슈트라흐비츠가 함께 설립한 독일의 스포츠 에이전시다. 아퍼투라 스포츠는 축구선수들의 관리와 이적, 축구 클럽의 인수합병 컨설팅 등을 핵심 비즈니스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과 축구 산업의 많은 중역들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독일 외 유럽 리그의 클럽들은 물론이고 초창기부터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선수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퍼투라 스포츠는 독일 대표팀의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마티아스 긴터(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 선수가 있다.

마틴 라트

아퍼투라의 법률 고문이자 공동대표인 마틴 라트는 변호사로서 스포츠 법률, 특히 축구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로이틀링겐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여러 명의 변호사가 그를 위해 일하고 있다. 마틴은 여러 분데스리가 구단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선수 에이전시 및 선수 관리자들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축구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마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성공적으로 선수 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요하네스 슈트라흐비츠

아퍼투라의 대표인 기업가 요하네스 슈트라흐비츠는 일찍이 유명인사들을 관리해주며 독일 연예계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으며 성공한 독일어권 예술가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분야에 흥미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요하네스는 13년 가까이 운동선수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훌륭한 선수들을 관리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그는 2010년, 마틴 라트와 팀을 이루고 아퍼투라 스포츠를 설립했다.

구자철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퍼투라: 구자철은 사실 우리가 유럽 무대에 진출시킨 첫 한국인 선수였다. 당시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분데스리가 1부리그 VfL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성사시켰다. 구자철은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며 우리는 단지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인스하나의 공동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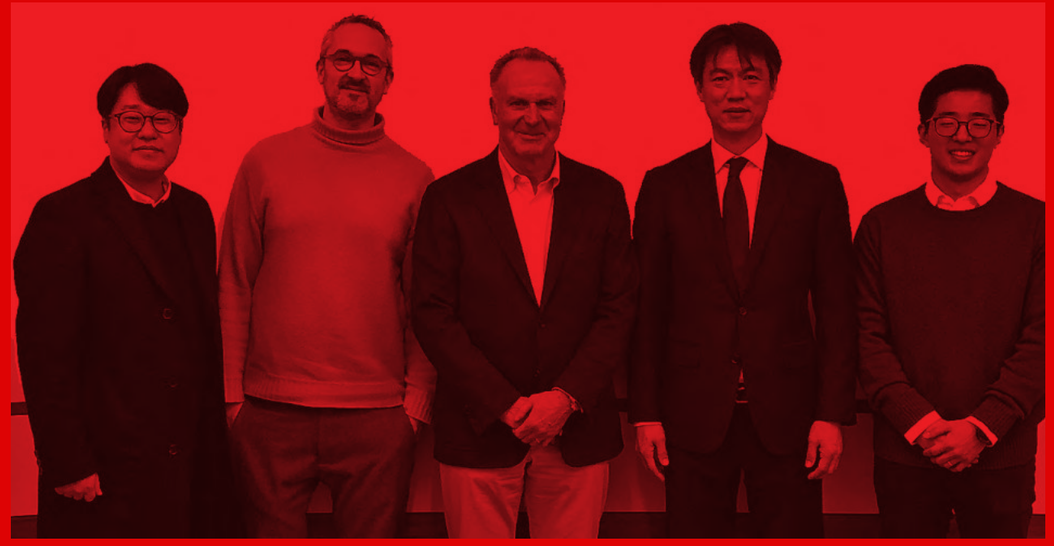
아퍼투라: 우리가 구자철과 함께 일해온 시간만큼 구자철의 한국 매니지먼트사와 담당자는 매우 협조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왔다. 근 10년 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 에이전시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 모두에게 특별한 이슈가 되었다.

아인스하나의 비전

아퍼투라: 우리는 아인스하나를 유럽과 아시아 스포츠 산업의 가교로 본다. 특히 축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아인스하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다. 우리는 스포츠 분야의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아인스하나만큼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잘 이해하는 회사는 유럽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럽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측면에서 다른 어떤 한국 회사들보다도 앞서 있다. 우리는 선수가 해외진출을 위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나 유럽의 클럽들이 정확히 선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자문 등 유럽 축구계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잠재력은?

아퍼투라: 한국 축구의 잠재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를 가진 나라다. 이미 국내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이 유럽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엄청난 도약은 물론, 그들이 꿈꾸지 못한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경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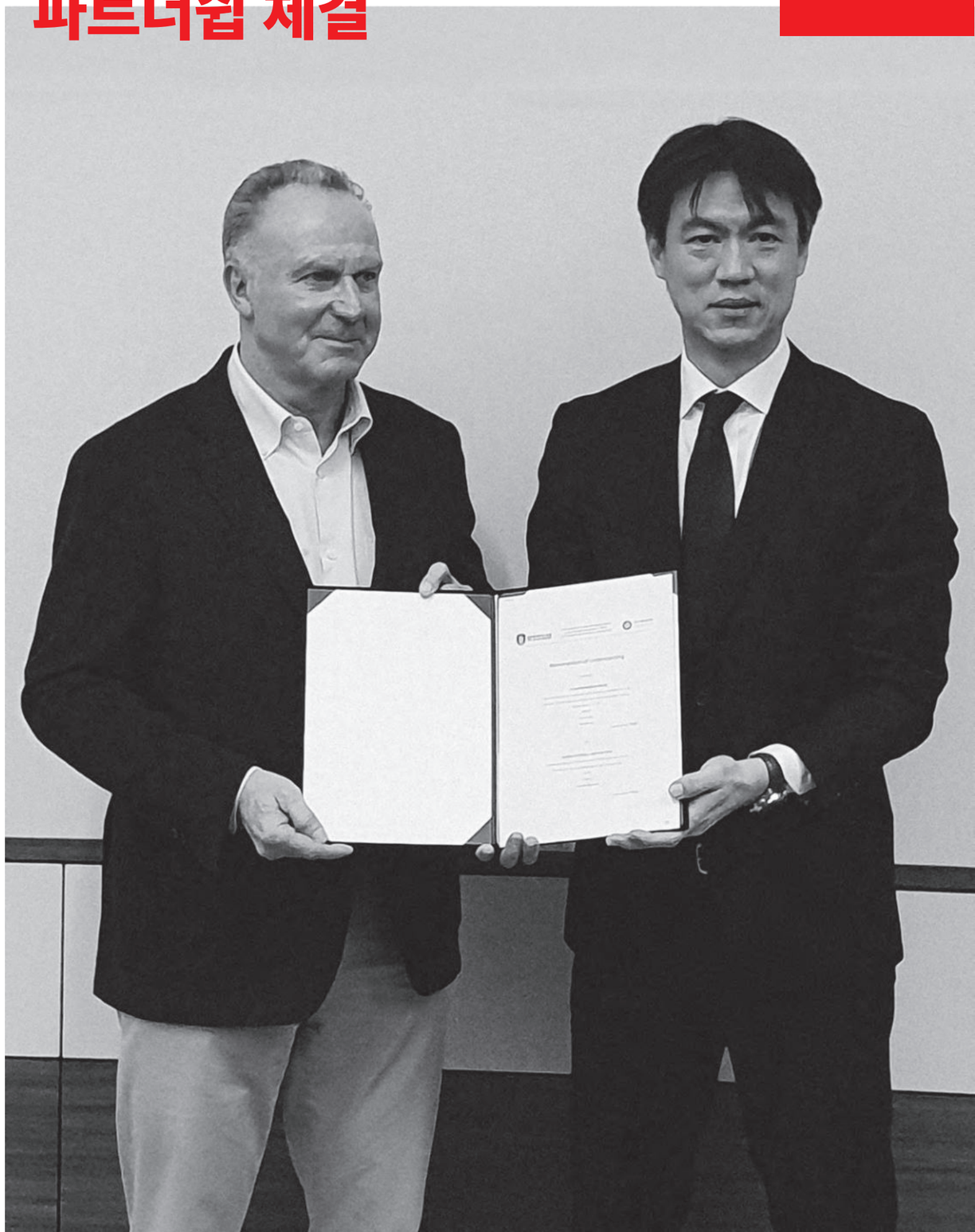


2019년 2월 1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 강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하려는 독일 FC 바이에른 뮌헨이 손을 잡았다. 아인스하나는 오랜시간 동안 양 기관과 맺어온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이끌어내는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FC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선진적인 축구 산업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대한축구협회.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와 FC 바이에른 뮌헨의 파트너쉽 체결



구자철의 풋볼 토크콘서트 & 마스터 클래스

구자철 선수의 분데스리가 여름 휴식기를 앞두고 아인스하나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구자철은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제주 유소년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뜻깊은 일을 진행하고 싶었다.

각별한 애정의 제주

구자철에게 있어 제주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보인고 시절, 졸업을 앞두고 진학할 곳이 없던 그에게 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준 팀이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였다. 유소년 때 자신은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다고 말한 구자철은 제주에 입단 후 일찌감치 프로 무대에 나서며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어, 이후 분데스리가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뛰던 시절, 구자철은 체력을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라산을 50번 넘게 뛰어오르곤 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는 신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적절한 훈련이었다. 구자철 또한 당시에는 무엇이 좋은 훈련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에겐 여전히 남아있다. 구자철은 이러한 경험을 제주도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자신과 같은 열정이 있는 선수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2019년 6월 5일, 아인스하나는 구자철 선수와 함께 제주 유소년 축구선수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풋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프로 선수를 목표로 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석하여 구자철 선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다. 학부모들 또한 구자철 선수가 본인이 선수로 성장하면서 느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9년 6월 9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선수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22명의 선수들은 제주종합운동장에 모여 구자철이 진행하는 '풋볼마스터클래스'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구자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구단 FC 바이에른 뮌헨의 아시아 스포츠 디렉터인 마티아스 브로자머 코치가 함께 자리하여 제주 유소년 선수들에게 뜻깊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브로자머 코치는 특히 '훈련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했다. 한편, 구자철은 성장기의 선수들에게 좋은 자세를 갖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또한 훈련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닌, 매 훈련의 의미를 선수 스스로가 사고하는 습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매년 여름 휴식기에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이벤트를 위해 기꺼이 휴가를 반납하겠다는 구자철, 그의 열정에 힘입어 아인스하나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브로자머 코치는 **'훈련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했다.
구자철은 성장기의 선수들에게 **좋은 자세를 갖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우리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2019년 6월의 어느 날, 구자철과 아인스하나가 한 카페에 모였다. 지금까지 해온,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중 매체에서 개인 미디어로 분산되고 있는 요즘, 아인스하나에게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구자철이라는 키워드는 빼는 게 어때?

유튜브 채널의 개설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며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바로 채널명 선정. 아인스하나의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함축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찾기 위해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구자철 TV, 구글구글, KOO TV 등 직관적인 느낌의 아이디어가 무난하다는 것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지만, 구자철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구자철의 개인 채널이 아닌, 더 나은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아인스하나의 스토리가 쌓이는 공간이라는 것이 구자철의 의견이었다.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고뇌가 시작되었다. 많은 아이디어들 가운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키워드가 있었다.

슛, 별은 나의 친구

채널의 이름 '슛, 별은 나의 친구', 줄여서 '슛별친'은 90년대 초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의 주제가와 구자철의 유소년 시절 일화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구자철은 유소년 선수 시절, 밤마다 타이어를 끄는 훈련을 하다 지쳐 그라운드에 쓰러져 밤하늘의 별과 대화하면서 선수의 꿈을 이어갔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오늘의 어린 선수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인스하나의 유튜브 채널명은 그렇게 탄생했다.

슛별친의 콘텐츠

아인스하나는 선진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슛별친'에 업로드하고 있다. 채널 개설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독자 12만 명을 달성하면서 아인스하나의 프로젝트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FC 바이에른 뮌헨과의 협업을 비롯한 선진적인 독일 축구 시스템 소개와 구자철 선수의 카타르 생활기 등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분데스리가 스카우트의 시선으로 한국 유소년 선수들을 보다

2019년 8월 8일, 펄펄 끓는 활주로 아스팔트를 가르며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했다. 게이트 앞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평범해 보이는 10명의 외국인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큰 키의 아인스하나 공동대표 요하네스 슈트라흐비츠와 눈이 마주쳤고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슈트라흐비츠가 차례대로 외국인 동료들의 소개를 시작했다. 그들은 포항에서 열리는 2019 K리그 유스 U17, U18 챔피언십을 보기 위해 유럽에서 건너온 스카우트들이었다.

아인스하나는 독일 분데스리가 및 유럽 구단들과 오랜시간 다져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월스포츠, FS 코퍼레이션과 함께 이번 유스 챔피언십 기간 동안 스카우트들의 의전과 통역을 수행했다. 바이어 04 레버쿠젠, 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 VfL 볼푸스부르크,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SC 프라이부르크, FC 쾰른, FC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레드불 잘츠부르크. 이름만 들어도 유럽 무대에서 쟁쟁한 축구팀들에 소속된 스카우트들이었다. 사실, 해외 스카우트가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9명의 스카우트가 함께한 대회를 찾은 것은 새로운 풍경이었다.

한국 유소년 선수들의 데이터를 쌓다

2018년에도 포항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을 방문했던 SC 프라이부르크의 스포팅 다이렉터 어시스턴트 겸 스카우트인 빈센트 켈러는 “작년에 와서 눈여겨본 선수들이 올해 얼마나 기량이 발전했는지 점검의 측면도 있다. 앞으로 매년 선수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한국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라며 한국 유소년 선수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계획에 대해 말했다. SC 프라이부르크는 권창훈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영입하며 한국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팀 중 하나다.

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

스카우트의 직무 특성상, 모든 스카우트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통역으로서 그들과 매일 함께 붙어있고 대화를 나누며 스카우트들이 서로 비슷하게 남긴 소감들이 있다. 우선, 스카우트들 모두가 칭찬한 것은 선수들의 ‘기술’이었다. 동년배의 독일 유소년 선수들보다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키고 풀어내는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이 스카우트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분데스리가 스카우트들이 한국 유소년 선수들에게 받은 가장 큰 인상이자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필드 위에서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다른 한편으로 스카우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아쉬워한 부분은 바로 필드 위에서의 상황 판단 능력이었다. 스카우트들은 경기에서 좋은 찬스마다 도전적인 패스 플레이, 슈팅이 나오지 않자 아쉬움을 내비쳤다. 스카우트들이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FC 쾰른의 스카우트 크리스 크레세는 “선수들이 경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가끔은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소년 축구에 남은 과제

분데스리가의 스카우트들이 일주일간 K리그 유스팀들의 경기를 보고 분석하며 느낀 것은 명확했다. 독일의 유소년 선수들과 비교해서 팀을 중시하는 문화와 뛰어난 테크닉,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한국 유소년 선수들이 가진 좋은 미덕들이다. 하지만 도전을 피하는 태도, 경기 상황에서 나오는 부족한 판단력 그리고 다소 아쉬운 피지컬은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독일 스카우트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인스하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TSG 호펜하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하다

2019년 10월, 아인스하나가 독일로 향했다. 독일의 선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영상으로 담아 슛별친의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3주간 독일 곳곳을 방문했다. 그 중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곳이 있었다. 바로 TSG 1899 호펜하임의 트레이닝 센터다.

호펜하임 powered by SAP

TSG 1899 호펜하임은 프로 무대에서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팀이다. 90년대 소도시를 연고로 8부리그에서 클럽의 역사가 시작된 호펜하임은 2000년대에 들어서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공동설립자이자, 호펜하임 유소년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디트마르 호프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면서 팀의 규모와 성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2008년 호펜하임은 독일의 최상위 리그인 분데스리가로 승격에 성공하며 1부리그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혁신의 아이콘, 호펜하임

'디트마르 호프', '나겔스만', 'SAP' 등 '호펜하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다. 이 여러 키워드 안에는 모두 혁신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다. 나겔스만은 호펜하임에서 28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연소 감독으로 부임하며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함과 동시에 꾸준한 성적을 올렸다. 현재 나겔스만은 분데스리가 우승권에 있는 RB 라이프치히의 지휘봉을 잡으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SAP는 지금의 호펜하임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기업이다. 그들이 개발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을 축구에 응용시키며 구단 운영과 선수단 관리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SAP의 구단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호펜하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구단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모든 움직임은 머리를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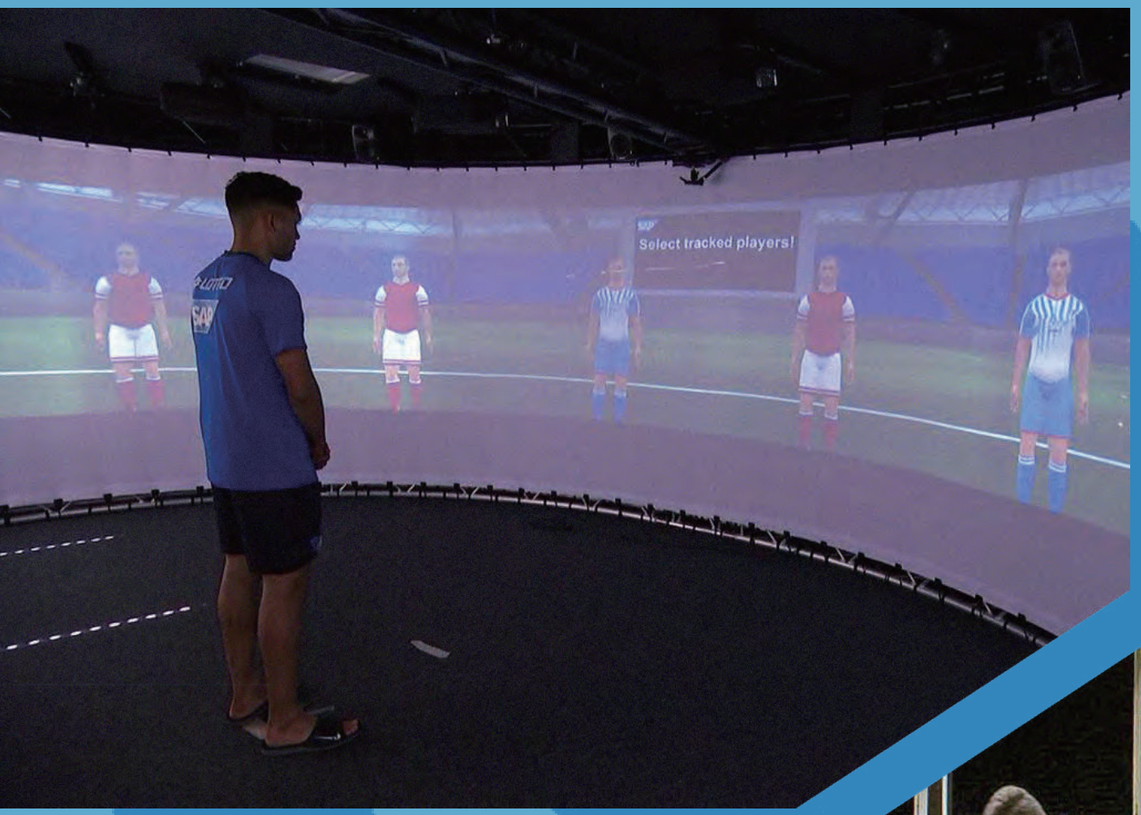
호펜하임의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했을 때 처음 느낀 인상은 '평범함'이었다. 여느 분데스리가의 중소구단처럼 트레이닝 센터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외적인 부분에 불과했다. 야외 훈련장을 거쳐 트레이닝 센터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호펜하임의 핵심역량을 느낄 수 있었다. 센터의 소개를 맡은 스포츠 심리과학 부서의 얀 슈필만은 다른 구단과 비교해 호펜하임 트레이닝 센터가 갖는 특성은 바로 선수들의 심리 안정과 인지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스포츠 심리학자를 한 명씩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호펜하임은 심리과학 부서의 상주 직원이 5명으로 리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얀 슈필만은 호펜하임이 스포츠 심리과학에 이례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면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에서 오는 부담감과 경기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들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호펜하임은 프로선수는 물론 유소년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와 멘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로, 뛰어난 피지컬과 테크닉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인지능력이 선수들의 기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부상으로 인해 경기감각이 떨어지거나 성장기의 유소년 선수들에게 특히 신경 근육 트레이닝이 기량 발전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얀 슈필만은 인지능력 및 신경 근육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예시로 '풋보나웃'과 '헬릭스'를 보여주었다.

얀 슈필만은 헬릭스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스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팀으로 올라갔을 때 프로 리그의 경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부상에서 갓 회복한 선수들도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우리는 헬릭스와 같은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실전을 앞두고 근골격계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신경근계 및 인지능력을 대비하여, 선수들의 더욱 성공적인 데뷔와 복귀를 돕고 있다."

호펜하임의 트레이닝 센터 방문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모두가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호펜하임은 선수단 운영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대신, 첨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호펜하임의 이러한 도전은 축구계에 많은 교훈을 남긴다.



헬릭스 HELIX
180도 및 360도의 스크린 한 가운데에 서서 실제 경기 상황과 같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서 실제 경기의 속도감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구.

TSG 1899 Hoffenheim

호펜하임은 헬릭스와 같은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근골격계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신경근계 및 인지능력의 향상을 통해,
선수들의 더욱 성공적인 데뷔와 복귀를 돕고 있다.

풋보나웃 FOOTBONAUT
케이지 형태의 훈련 공간으로 볼이 나오는 곳과 패스를 해야 하는 곳이 서로 다르며, 선수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볼을 받고 패스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움직임을 수행한다.

신경-근육 트레이닝은 장기 부상으로 인해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와 성장기의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UNIFORIA
UNIFORIA

COPA

PREDATOR

X

UNIFORIA

© 2020 adidas AG

adidas

KFA 해외 지도자 초빙 교육, 독일 U20 국가대표 마누엘 바움 감독을 만나다

2019년 12월 2일, 구자철의 전 소속팀 FC 아우크스부르크의 전 감독이자, 현 독일 U20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마누엘 바움과 수석코치 레네 리들비츠가 한국을 방문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매년 주관하는 해외 지도자 초빙 교육의 대행을 맡은 아인스하나가 바움 감독을 강사로 초빙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마누엘 바움 감독은 비디오 분석 및 데이터 활용의 전문가로서 최신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인스하나는 바움 감독이 한국의 지도자들과 유소년 선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초빙하게 되었다.

해외 지도자 초빙 교육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치러졌으며, 각각 천안축구센터에서 일선 지도자 200여 명과 파주 NFC에서 KFA 전임지도자 및 골든에이지 지역지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시간은 이론 및 실습 (선문대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KFA 골든에이지 선수들) 그리고 피드백으로 이뤄졌다.

프로페셔널의 모범을 보여준 교육

마누엘 바움 감독의 통역으로서 교육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내용과 프로페셔널한 역량이었다. 교육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에 초첨을 맞춰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바움 감독은 피드백 수업에서 자신이 직접 편집한 실습 영상을 보여주며 강의의 효과적인 이해를 끌어냈다. 교육이 끝나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진 교육 만족도가 이를 증명했다.

MANUEL BAUM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야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선수 선발'이었다. 즉,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이고 독일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마누엘 바움 감독은 이에 대한 답에 앞서 "과거에 독일은 오랫동안 단점을 가진 선수들을 걸러내는 것을 '좋은 스카우트'로 여겨왔고 이는 결국 특색이 없는 선수들을 길러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 독일의 선수 선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바움 감독은 "유소년 선수들은 현재 기량보다 잠재성이 더욱 크다. 선수를 면밀히 관찰하고 단점이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지, 개선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탁월한 장점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 전술, 멘탈, 인지능력, 영양, 피지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수의 면모를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잠재성이 큰 한국 축구

마누엘 바움 감독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선수들에 비해 잠재성이 더욱더 크다고 말했다. 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천성훈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바움 감독은 한국 선수들이 가진 성실함, 책임감, 겸손함 등의 인격적인 부분이 성장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이 유년 시절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 체계적이지 못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선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면 꾸준히 월드컵 4강에 들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울산 현대에 새로운 활기를! 독일 코치를 파견하다

Andreas Weinberger
2020년 태국 전지훈련을 함께한 안드레아스 바인베르거 코치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아인스하나는 K리그의 명문구단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팀의 전술적인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독일 코치의 영입에 나선 것이다. 아인스하나는 유럽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진 네트워크를 통해 코치를 찾아 나섰다.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와 한국 축구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관심 또한 영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게 우리는 2019년 마크-파트릭 마이스터, 2020년 안디 바인베르거 코치와 함께하게 되었다.

단기계약, 가능성을 확인하다

2019년 울산 현대 코치로서 팀의 프리시즌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을 함께한 뒤 독일 U-15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복귀한 마이스터 코치는 “유럽과는 다른 한국 선수들의 문화와 특성을 알 수 있었다. 팀을 중요시하는 한국 축구는 앞으로 개성과 창의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3개월간의 여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울산 현대는 2019 K리그에서 안타깝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시즌 내내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리그 1위를 유지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Marc-Patrick Meister
2019년 울산 현대 축구단 단체 사진에 함께한
마크-파트릭 마이스터 코치

2020년 프리시즌을 함께한 뒤 안타깝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독일 VfB 슈투트가르트 유소년팀 감독직으로 복귀한 안디바인베르거 코치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젊은 선수들을 볼 수 있었다. 더 오랜시간 팀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 훈련 스케줄과 코치진들끼리의 업무분담 그리고 토론 문화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K리그 개막이 5월 8일로 늦어졌지만, 울산 현대는 개막전 화끈한 4-0 대승을 포함해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2020.06.24. 기준 6승 2무 0패)

아인스하나는 독일 코치를 중개하며 무엇보다도 코칭 팀의 프로페셔널한 운영 및 관리, 영상 분석과 데이터 활용방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독일의 관점에서 코치진의 역량은 오로지 선수들의 완벽한 전술 이해와 실전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독일과 한국 간에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두 시즌에 걸친 교류가 울산 현대의 팀 전술과 조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확신한다. 2020년, 김도훈 감독과 울산 현대의 리그 우승을 응원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아인스하나는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다.

Road to Munich!

FC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 한국 대표팀 참가권 획득

아인스하나가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위한 큰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매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의 2020년 한국 대표팀 선발 및 참가 권한을 아인스하나가 획득한 것이다. 2004년, 2005년생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은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선발팀이 참가하여 서로 경쟁하는 7 vs 7 축구 토너먼트다. 2020년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은 사상 최초로 한국 대표팀의 참가가 결정된 해다. 구자철과 아인스하나의 수개월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9년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은 미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중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온 두 팀이 뮌헨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며 총 8개의 팀이 FC 바이에른 뮌헨의 홈 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최종 토너먼트를 치렀으며 국가 선발전을 치르는 예선에 약 1만여 명의 유소년 선수가 몰렸을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웠다. 뮌헨에서 약 일주일 동안 결승 토너먼트와 더불어 FC 바이에른 뮌헨 스타 선수들과의 만남, 현지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그리고 도시 투어 및 문화 관광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19년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 우승은 미국팀에게 돌아갔다.

한편,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5월 중순에 계획되었던 2020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정과 완전한 안정이 될 때까지 바이에른 뮌헨과 아인스하나는 긴밀하게 연락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큰 목표와 발전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 유스컵 한국팀 선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INSHANA CSR Project

축구로 희망을 선물하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의 역사를 선물한 구자철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스타이다. 성장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겐 구자철은 닮고 싶은 존재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이 된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타는 필연적으로 큰 책임감과 동시에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

아인스하나가 설립되기 전부터 구자철은 이미 어린 축구 선수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이 간절한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 난치병 환우 돕기

2012년 12월, 구자철은 한국 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자신을 응원하고 동경해오던 이세기(급성림프구성백혈병) 어린이 외 2명의 난치병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재단과 처음 만나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재단 홍보 대사가 된 구자철은 매년 한국에서 축구국가대표 경기에 난치병 환우들을 초대해 함께 경기를 보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2019년 9월, 아인스하나는 유투브 채널 '슛포러브'가 제작하고 삼성 멀티캠퍼스가 후원하는 <신입사원 구자철> 영상을 함께 기획했다. 총 6화로 제작된 이 영상은 조회수 당 1원씩 메이크어위시재단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 메이크어위시재단은 미국 피닉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메이크어위시의 한국지부로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난치병 아동들에게 소원성취를 통해 삶의 희망, 용기, 기쁨을 전하는 세계 최대의 소원성취(Wish Granting) 전문기관이다. 1980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37개 지부에서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30만 명 이상의 난치병 환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간 350명 내외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구자철은 아디다스와 함께 2017년부터 '아디다스 마이드림FC'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이어져온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행사는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스포츠 스타와 함께 운동을 배우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9년부터 아인스하나는 구자철 선수와 함께 아디다스의 사회공헌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아디다스 코리아 사장 에드워드 닉슨은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바쁜 와중에도 매번 마이드림 FC에 참여해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구자철 선수에게 고맙고 참석한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고 더 나아가 삶의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아디다스의 취지에 공감해 참석했다. 뜻깊은 일을 하는 아디다스 코리아와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모두 응원을 보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bepro11

WE TAKE YOU TO THE NEXT LEVEL

전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축구 분석 플랫폼, 비프로일레븐.
AI기반의 영상 기술과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로 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AI기술을 이용한 비프로 트래킹 시스템

경기 중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현재 K리그 서비스 중)

EPL, LA LIGA, BUNDESLIGA, K리그 등 7000여 팀이 비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bepro11.com | 앱: 'bepro11' 검색

INSHANA

Sports Business Experts